

서술어가 생략된 고시조의 문학치료 기능 연구

박인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A Study on the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s of Ancient Sijo that Ends without a Predicate

Park In-Kwa*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요약 시조는 우리의 삶에 역동적이고 정격화 된 치유의 활력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시조가 명사로 끝나는 부분에서 발화하는 문학치료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시조의 종장에 사용된 명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발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시조는 한 음보 단축된 11음보로 응집되면서도 12음보의 기능으로 발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조의 기능 발화는 문학치료의 부호화에 대한 치료적 서술이다. 그래서 시조나 언어에서 서술하지 않고 명사만 언급해도 치유적인 부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시조의 명사가 인체에 끼어들어 주어와 되고 인체의 뉴런이 서술어가 되어 문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때 뉴런의 핵이 명사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 것을 인체가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이 또한 인체에서 발화하는 치료의 기능인 부호화의 과정이다.

- 주제어 : 부호화, 정격화된 활력, 문학치료의 부호화, 치료적 틀, 시조의 문학치료 기능, 감정의 증폭

Abstract The Sijo provides dynamic rated therapeutic activities in our life.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the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 secreted from the Sijo that ends with a noun. As a result, the noun used at the final sentence secretes a predicative function. This kind of Sijo functions as twelve sound steps, even though it is condensed of just eleven sound steps with one sound step omitted. This functional secretion of Sijo is therapeutic predicate concerned with encoding of literary therapy. Thus it become possible to activate the therapeutic encoding in Sijo or a language by uttering only noun, instead of the predicate. That's because the noun in the last sentence of Sijo permeated in the human body and is done subject, and neuron of the body becomes a predicate, so that the Sijo's subject and the neuron's predicate are fused into a sentence. During the course the human body seems to recognize that the neuron's nucleus analyzes the information of the noun and makes a new sentence. This recognition might also be regarded as a process of encoding that has therapeutic functions secreted from the human body.

- Key Words : encoding, rated Activity, encoding of literary therapy, therapeutic frame,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 of Sijo, amplification of emotion

*Corresponding Author : 박인과(born59@hanmail.net)

Received June 1, 2017

Accepted August 20, 2017

Revised August 3, 2017

Published August 28, 2017

1. 서론

시조의 문학치료 기능에 대한 이번의 연구는 시조의 문학치료 기능 중에서 명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조가 종장 셋째 음보의 명사로 끝날 때 그 명사는 시조의 12번째 음보를 인체의 시스템에서 “부호화”[1,2,3,5]한다는 것이다. 즉 시조가 11번째 음보로 끝났을지라도 인체에서 그 뒤의 공란이 발화하여 12음보가 된다는 것이다.

시조의 명사가 일반적으로는 앞에 언급된 텍스트들을 논향으로 하는 함수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11번째 음보에서 명사로 끝나는 시조는 그 명사가 앞의 텍스트들을 논향으로 삼고 뒤의 공란도 논향으로 삼게 된다. 이때 뒤의 공란은 서술어의 형식으로 발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장이나 인체의 서사는 완성된 언어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완성된 언어를 추구하는 것이 문학치료의 부호화이다. 시조가 명사로 끝날 때 뒤의 공란을 논향으로 삼아 발화를 시작하면 문장은 그대로 명사로 끝나 있지만 인체의 시스템에서는 서술어가 형성되어 완전한 문장을 구체화하게 된다.

이러한 시조의 기능을 본 연구자가 가설로 세운 “Emotion-Codon”[13]을 활용하여 도출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간 본 연구자가 연구해 온 “논문들”[6,7,8,9,10,11,12,13,14]의 연장선상에 있다.

2. 명사의 기능에 대한 분석

2.1. 세 문장의 추출물

다음 시조의 명사 “필동말동”은 세 문장의 감정들을 걸러낸 추출물로서 존재한다. 작품은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2012)[4]의 348쪽에 나오는 시조이며 작자에 대한 자료는 없다. 이와 비슷한 종류의 명사로 끝나는 작품들은 고시조대전에 많이 나온다[4].

ㅁ화 옛 등결에 춘설이 도라오니
 옛 피든 가지에 피염죽 흐다마는
 춘설이 난분분흐니 필동말동

시조에서 초장과 중장, 그리고 종장의 첫 구의 감정과 의미는 모두 명사 “필동말동”에 응집되고 있다. 그래서 “필동말동”은 초장과 중장 그리고 종장의 추출물이다. 왜

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필동말동”의 의미론적 논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조가 12음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음보로 끝을 맺었다. 그 이유는 “필동말동” 뒤의 여백이 12번째 음보인데 그 여백이 12번째 음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여백이 “필동말동”의 의미론적 논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필동말동”은 앞의 부분 전체를 의미론적 논향으로 삼는 동시에 뒤의 12번째 음보까지 의미론적 논향으로 취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이때 “필동말동”은 “하여라”, “하노라”... 등의 12번째 음보를 발화하는 모체이다. 12번째 음보에 서술어를 발화하는 것이다. 물론 독자에 따라 이러한 서술의 형식은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발화될 수 있다. 독자마다 각각 자신의 인체에 다른 느낌과 발화의 수용체 및 활동전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2. 여백의 부호화

인체의 뉴런에 의해 시조의 12번째 음보의 빈 공간은 서술의 형식으로 부호화된다. 이것은 인체의 신경생리학적 작용으로 인체의 뉴런 시스템에 의해 “필동말동”에 대한 느낌이 발화되는 것이다. 발화되는 서술어의 형태는 고시조에서 많이 사용되는 “하여라”를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조의 유형은 고시조에서 54군데에 나오는데 “하여라”가 12번째 음보로 붙은 경우가 50군데, 그리고 “하여라”가 생략되고 “필동말동”으로 끝나는 경우는 4군데 밖에 없기 때문이다[4]. “하여라”가 있는 경우는 92% 이상이다. 그러므로 “필동말동”으로 끝나고 생략된 것은 고시조에서는 “하여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2번째 음보가 없는 시조의 “필동말동”은 스스로 서술어 “하여라”를 발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서 기쁨(J), 슬픔(S, U), 분노(A), 사랑(L) 등은 Emotion-Codon을 부호화한다. 본 연구자는 이렇게 Emotion-Codon이 “J, S(U), A, L”의 4가지 감정의 상태인 유전 인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조에서 10번째 음보까지 각 음보마다 발화되는 감정 인자들을 배치하면 “JJJJ / JJJS / AA” = “JJJJ / JJJU / AA”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음보들의 감정이 집중된 “필동말동”은 이 감정 인자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Table 1>과 같이 Emotion-Codon을 활성화한다. Emotion-Codon은 시조 3장의 감정 단계들의 융합에 대한 모든 경우의 부호화를

<Table 1> Emotion-Codon of "PildongMaldong"(필동말동)

Second base →	U	L	A	J	Second base ←
First base ↓					Third base ↓
U	UUU UUL UUA UUJ	ULU ULL ULA ULJ	UAU UAL UAA UAJ	UJU UJL UJA UJJ	U
L	LUU LUL LUA LUJ	LLU LLL LLA LLJ	LAU LAL LAA LAJ	LJU LJL LJA LJJ	L
A	AUU AUL AUA AUJ	ALU ALL ALA ALJ	AAU AAL AAA AAJ	AJU AJL AJA AJJ	A
J	JUU JUL JUA JUJ	JLU JLL JLA JLJ	JAU JAL JAA JAJ	JJU JJL JJA JJJ	J

These Emotion amino acids express various changes of the Emotion DNA



[Fig 1] Posting on the Facebook[15]

3개의 단계(base)로 보여줄 수 있는 틀이다.

<Table 1>에 의하면 “JJU”, “JJA”, “JJJ” 등이 활성화되고 분노의 코드 “A”가 비활성화되었다. 물론 독자의 감정 수용체에 따라 “JJA”, “AJJ”, “JJJ” 등이 활성화되고 슬픔의 코드 “U”가 비활성화될 수 있다. 각 인체마다 부호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2.3. 명사가 발화시키는 서술어들

본 연구자는 본인이 주도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상의 시조회원들에게 [Fig. 1]과 같이 게시하여 “필동말동”(PildongMaldong) 뒤에 일어나는 느낌을 표현해 달라고 했다.[15]



[Fig. 2] Encoding of the 필동말동(PildongMaldong) on the Facebook[15]

파랗게 빈 허공을 가시로 찢러대도
 꿈들이 깰동말동 하다고 고백하니
 언제나 탕자꽃잎이 필동말동

이 시조를 살펴본 독자들이 “필동말동”(PildongMaldong)에 의해 발화되는 12번째 음보들을 표현하였다 [15]. 독자의 신경 시스템들이 부호화된 것은 “하여라”, “하노라”, “하다네”, “개기네”, “놀리네”, “하였네”, “하노라”, “하더라”, “알뜰네”, “엿보네”, “까부네”, “놀리네”,

“버티네”, “푸르네”, “홀리네”, “도도해”, “아프네”, “애타네”, “보체네”, “감질나”, “하야네”, “질리네”, “꿈꾸네”, “할랑가”, “잔다네”, “잠드오”, “하지라”... 등등 100개가 넘는 서술어들이었다. 이것은 텍스트의 명사가 인체에 느낌으로 끼어들 때 인체의 뉴런들이 서술어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각각 다른 치료적 틀을 지닌 인체의 시스템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들 혹은 같은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필동말동(텍스트) + 뉴런(인체) → “필동말동(텍스트) + 하여라(인체)”의 형식으로

로 부호화된 것이다.

이것이 명사로 끝낸 시조의 문학치료 기능이다. 각각 독특한 표현들도 많이 나타났다. 이 예는 독자들이 “필동 말뚝”에 의해 서로 다르거나 같은 자신만의 치료적 틀에 의해 부호화를 이루어 낸다는 것을 잘 반영해 준다. 이렇게 다양한 서술어들로 발화되는 현상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문학치료의 부호화를 이루는 것이다. 시조의 명사가 주어가 되고 인체의 뉴런이 서술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시조의 일부는 서술어를 생략함으로써 독자들의 다양한 감정의 부호화를 정격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격화된 활력의 부호화는 Emotion-Codon에서 거듭되는 부호화와 “재부호화”[3,4]를 통한 치료적 틀로써 감정의 증폭을 이루어 카타르시스와 같은 감정의 극한을 경험케 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고시조가 11번째 음보에서 명사로 끝나면 12번째 음보는 어떻게 그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고시조에서 11번째 음보에서 명사로 끝나는 작품은 그 명사가 시조의 앞부분 전체를 의미론적 논향으로 삼는 동시에 뒤의 12번째 음보까지 의미론적 논향으로 취하고 있는 특이한 기능을 갖춘 것이다.

시조의 11번째 음보의 명사는 시조의 세 문장들의 감정들을 걸러낸 추출물이다. 그리고 그 명사는 “하여라”, “하노라”... 등등의 12번째 음보를 발화하는 모체이다. 12번째 음보에 서술어를 발화하는 것이다. 시조가 한 음보 단축된 11음보로 응집되면서도 명사는 서술어의 기능을 끌어당겨 공란을 12번째 음보의 기능으로 발화시키는 것이었다. 인체의 뉴런에 의해 시조의 12번째 음보의 빈 공간이 서술의 형식으로 부호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체의 신경생리학적인 작용으로 인체의 뉴런 시스템에 의해 명사에 대한 느낌이 발화되는 것이다. 시조의 명사가 인체에 느낌으로 끼어들어 주어가 되고 인체의 뉴런이 서술어가 되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텍스트의 명사가 인체에 느낌으로 끼어들 때 인체의 뉴런들이 서술어의 역할을 발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각 인체의 시스템에 따라 치료적 틀이 달라서 서로 다른 표현들 혹은 같은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명사(텍스트) + 뉴런(인체)” → “명사(텍스트) + 하

여라(인체)”의 형식으로 부호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체에서 뉴런의 핵이 명사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 것을 다시 인체가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이 또한 인체에서 발화하는 치료의 기능인 부호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고시조는 서술어를 생략함으로써 독자들의 다양한 감정의 부호화를 정격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격화된 활력의 서술어에 대한 부호화가 거듭되어 감정의 증폭을 이루어 카타르시스와 같은 감정의 극한을 경험케 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시조를 끝낼 때 일일이 서술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명사만 언급하고 끝나도, 각 인체마다 자신에게 맞는 서술적인 부호화를 진행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시조의 기능을 활용하여 문학치료를 시행한다면, 시조를 창작할 때 시조가 참여자의 신경생리학적인 문학치료의 부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 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REFERENCES

- [1] Baars Bernard J and Gage Nicole M,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1E, B. G. Kang trans, Kyobo Books, 83-184, 2010.
- [2] Bryan Kolb, Whishaw Q lan(2012),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H. T. Kim, M. S. Kim, J. J. Kim co-trans, Sigma Press, 151, 153, 310, 309-310, 2012.
- [3] Cooper Geoffrey M and Hausman Robert E,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J. S. Jeon et al, trans, World Science, 11, 2011.
- [4] H. G. Kim, H. T. Lee, S. W. Lee, Y. C. Kim, S. H. Kwon, K. S. Shin, G. H. Park compiled, Perfection of Ancient Korean Sijo, Seoul: National Cultural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348, 2012.
- [5] H. S. Min, K. J. Chang, O. R. Kwon, S. Y. Lee, H. M. Lee, H. A. Kim(2011), Human physiology,

- Yangseowon, 59, 2011.
- [6] I. K. Park,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1, No. 1, pp. 37-64, February 2015.
- [7] I. K. Park, “A study on Transfer-Literatherapy”, of the Korean Journal of Literatherapy, Vol. 5, No. 1, pp. 85-106, 2015.
- [8] I. K. Park, “Structuration of literatherapy transition”,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1, No. 2, pp. 21-36, May 2015.
- [9] I. K. Park, “A Study on the Right Writings for Sijo -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2, No. 1, pp. 13-33, February 2016.
- [10] I. K. Park,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eutic Use of Sij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11] I. K. Park, “A Study of Literary Therapy on the Rated Sijo as a Conductor that Works the Motherboard of Mind”,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2, No. 4, pp. 31-40, November 2016.
- [12] I. K. Park, “Literary Therapeutic Mechanism Analysis in which the Rated Sijo is Encoded as a Battery of Life”,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4, No. 4, pp. 45-50, December 2016.
- [13] I. K. Park, “Sijo Literature Therapeutic Research on Structuring of Emotion-DNA”,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5, No. 1, pp. 26-31, March 2017.
- [14] I. K. Park, “A Study on Sijo Literature Therapy structuralized in the Rated Codon”,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5, No. 2, pp. 9-18, June 2017.
- [15] <https://www.facebook.com/groups/451036668293400>

/?multi_permalinks=1569125426484513&Comment_id=1570991846297871¬if_t=like¬if_id=1500309608183007

저자소개

박 인 과(Park In-Kwa)

[증신회원]



- 2016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치료학과(문학치료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국어국문학박사 과정 재학중)

• 2009년 6월 ~ 현재 : 사단법인 녹색문단 이사장

<관심분야> : 국문학, 문학치료학, 감성과학, 생명공학, 신경생물학